

2023학년도 경북 미술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 올해 경북 합격한 위상 미술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면서 의지가 부족하고 늘어질 때 합격생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나도 언젠가 합격수기를 쓰고 있을 모습을 그리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합격 수기를 작성해 봅니다!

저는 합격 수기를 볼 때 합격생의 공부 내용을 이미지로 보니까 더 의욕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공부했던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 위주로 써보았습니다.

1차 시험성적 :

교육학 19점 + 전공 52점 = 71점 (컷+13.67)

2차 시험성적 :

실기시험 29.25 (경북 배점 30) + 심층면접 38.97 (경북 배점 40) + 수업실연 20 (경북 배점 20)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9.07 (경북 배점 10) (컷+20)

1. 기본정보

4년제 디자인 대학 졸업(산업디자인과) + 2년간 디자인 회사 근무 + 미술교육 대학원

초수 : 시간강사(미술 전공실기) + 디자인 입시학원 강사 병행 + 대학원 + 대구 위상 직강

(10.33 + 35.33 = 45.66) 1차 탈

재수 : 시간강사(미술 전공실기)병행 + 대구 위상 직강

(17.33 + 42.00 = 59.33) 1차 탈

삼수 : 시간강사 병행 (주1회) + 위상 온라인 강의수강

(19 + 52 + 29.29 + 38.97 + 20 + 9.07) 최종 합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에 올인 할 수가 없어서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 해왔습니다.

초수 때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시험을 쳤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재수 때 시간강사를 병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재수 때 했던 공부가 연결되어서 삼수는 일하면서 공부해도 공부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던 베이스가 되었던 것 같아서 재수 때 공부 방법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2. 공부 환경!

선생님들의 MBTI는 무엇인가요 ㅎㅎ? 저는 infj로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유형입니다. 스스로 어떤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암기를 잘 하는지 등등.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 전에 공부 환경부터 만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공부방, 침실을 분리하고 공부방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았어요. 공부방은 어두운 곳보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공부했어요!. 밝은곳에서 우울함을 덜어내면서 공부해야 집중이 잘 되었어요. 책상을 창문 앞에 두고 밖의 풍경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답답할 땐 스터디 카페로 나가, 밖에 흰히 보이는 곳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아무래도 공부가 길어지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점점 우울한 느낌이 들었는데, 빛을 보면서 공부하니 우울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손닿는 곳에 책과 프린트기를 두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책을 찾으러 가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렵게 집중했는데 물 마시고, 책 찾고, 프린트기 앞에서 프린트 걸면서 폰 만지고.. 그때마다 탄짓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것은 손 닿는 곳에 두려고 바퀴 달린 의자로 동선을 짧게 두었어요!. 프린트기도 자동 양면인쇄+빠른 인쇄속도+컬러 무한인크+복사+스캔+와이파이 기능 이 되는 기기를 선택했습니다! 급하게 아이패드로 필기한 것도 무선으로 뽑고, 모고 문제도 복사해서 붙이고..! 프린트기 좋은거 사서 프린트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생각했어요!



3. 일 병행 공부 방법!

일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째, 드라마 안 보기. 저희 가족 전부가 TV를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실에 TV소리랑 가족들 웃음소리 들리면 임고생 귀신이 공부방에서 기어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각자 방에서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봤어요. 둘째, 노래 안 듣기. 교육과정을 노래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듣지 않았어요. 듣고 외워야 하는 게 많은데 중독성 있는 노래를 들으면 수능 금지곡처럼 자꾸 하입보지만 떠오르더라고요.. 셋째, 유튜브, 인스타 삭제. 인스타는 여름까진 공스타를 하다가 공부가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나선 삭제했어요. 자극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스타가 의미 없었거든요. 넷째, 친구와의 통화 끊기. 정말 필요한 연락을 제외하곤 걸려오는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고민 상담이나 근황 토크가 1시간이면 이후에 집중하기까지는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만큼 쉬더라도 수다 떨면서 쉬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선택하고 쉬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기다려 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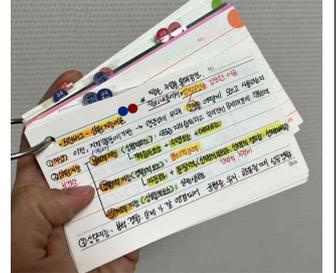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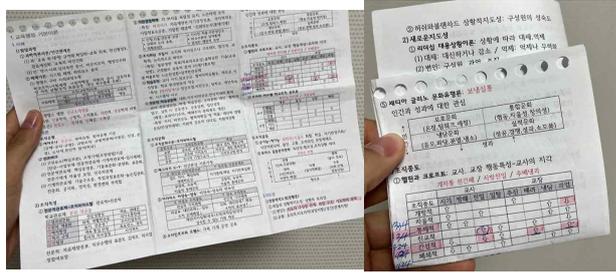
저는 최종 합격 때까지 계속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학교에 시간강사를 했기 때문에 1주에 하루만 학교를 갔습니다. 시간도 오전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절대!! 절대! 일이 중점이 되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엔 무조건 공부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일정이었습니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오로지 공부에 몰입하려 했습니다. 하루를 일하는데 쏟고 나면 다음날 의자에 앉아 집중하기 어려워요. 오전에 일하더라도 꼭 하루의 마무리는 한 페이지라도 읽고 끝내야 다음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하고 난 뒤 스터디를 활용해서 꼭 공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짜두었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하세요!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전공 실기 강사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2차 준비를 한다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임용과 동떨어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동시간에는 이어폰으로 미리 녹음해둔 교육과정을 들었어요. 15개정 교육과정을 노래로 불러 녹음해두고 차로 이동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총괄 목표와 역량 요소, 일반화된 지식부터 외우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택교과까지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외웠습니다. 하반기쯤엔 15 교육과정 한 권을 노래로 만들었고 전부 부르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봉 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입니다.

저는 단순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집중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세 번쯤 까진 집중하다가 계속 들으면 귀로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그때 종목을 바꿔서~교육학이나 전공을 암기했습니다. 작은 메모카드를 만들어두고 외웠어요. 메모카드는 절대 예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린 미술과목이다 보니 예쁘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 좋아해서 외우기 보다 예쁘게 공부하려고 하는 몫쓸 병이 있어요. 절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어짜피 이동하면서 보면 찢기고 더러워집니다.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시간 활용입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시간이 부족하다 생각 하지 마시고,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고민하시면 방법은 있어요. 단순암기 할 수 있는 과목(ex. 교육과정, 교육학, 미교론, 표현파트, 비평) 과 방법(ex. 노래부르기, 그림으로 외우기, 청킹 외우기, 눈 에바르기 등등) 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저처럼 교육과정 한 권은 그냥 외울 수 있게 됩니다.

1	교과과정	교과과정
2	교과과정	교과과정
3	교과과정	교과과정
4	교과과정	교과과정
5	교과과정	교과과정
6	교과과정	교과과정
7	교과과정	교과과정
8	교과과정	교과과정
9	교과과정	교과과정
10	교과과정	교과과정
11	교과과정	교과과정
12	교과과정	교과과정
13	교과과정	교과과정
14	교과과정	교과과정
15	교과과정	교과과정
16	교과과정	교과과정
17	교과과정	교과과정
18	교과과정	교과과정
19	교과과정	교과과정
20	교과과정	교과과정
21	교과과정	교과과정
22	교과과정	교과과정
23	교과과정	교과과정
24	교과과정	교과과정
25	교과과정	교과과정
26	교과과정	교과과정
27	교과과정	교과과정
28	교과과정	교과과정
29	교과과정	교과과정
30	교과과정	교과과정
31	교과과정	교과과정
32	교과과정	교과과정
33	교과과정	교과과정
34	교과과정	교과과정



교육과정 노래 목록표를 만들어 두고 연결해서 이동하면서 들었습니다.

교육학을 요약해서 정리해두었던 것입니다 A4 사이즈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더러워지면 다시 인쇄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재수 때 예쁘게 만들기 병 걸렸던 메모카드. 버리지 않고 같이 보았습니다.

4. 자신만의 암기 방법!

저는 이해해야 저절로 외워지는 편이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떠올렸어요. 예를 들면 처음 공부시작할 땐 표현용어 중에서 de~ 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아서 헛갈렸었어요. 데쿠파주, 데콜라주, 데콩포제, 데포르마송 등 de 가 뜻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나서 그 표현기법이 이해가 되도록 했어요. 한자어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마다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구요. 아무래도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정말 공부 집중 안 되고 외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재미있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썸이 중국 미술사에서 광희파의 조춘도를 예시로 드시면서 간략하게 특징 8가지 정도를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이미지가 기억에 남았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외웠습니다. 아래 제가 외웠던 몇 가지를 같이 붙여 두었어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나름의 방법으로 외우시길 바래요.

그림으로 암기하기 예시 - 미술 쌤들 추천합니다. !!

교실에서 쌍수한 미친자

(임상장학-특징)

교필 관계

(임상장학-유의점)

유자관

(데시와라이언-자기결정성)

포명(개별적 암기 포명)

등, 07조들, 08조들, 06조들, 09조들, 12조들, 13조들)

이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

내용

없는 목표(예: 표현의 결과)도 고려

목표 예: 타이런(Tyler)의 목표

해야 하는 목표(해결책은 여러 가지)

난 후에 연계 하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그 무엇

평가

- 평가방식
- 인의 평가
- 결과의 평가
- 문거지향검사 이용

해결책 발견 <=> 수업 진 학습

교육학 청킹을 이미지로 그리고 작게 출력해서 책 옆에 붙여두고 같이 외웠어요

유자 머리랑 라이언 머리랑 비슷한걸 기억해서 데시와 라이언은 유자로 결정했다. 이런식으로요

뒤다랑 뽀꾸가 들라한레 장소리해

파카 귀슈의 똥똥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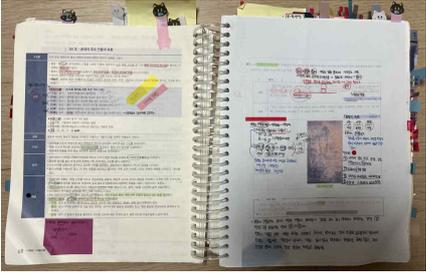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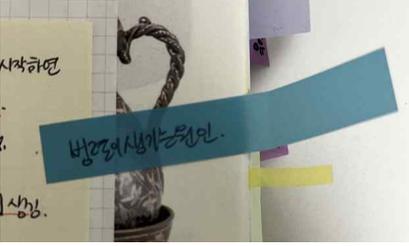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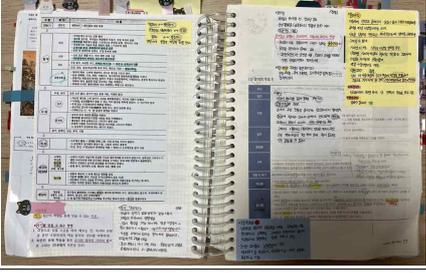
교육과정 노래는 성취기준과 평가 및 유의사항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든 두 노래를 이미지로 이어서 그려서 외웠어요. 해당 교육과정 옆에 개사 한 것과 이미지를 같이 붙여놓고 보면서 불렀어요

세 번째는 점검입니다. 백지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암기정도를 확인하기도 했고, 백지쓰기가 힘들 때나 시간적인 여유가 안될 땐 말로 설명하면서 점검했습니다. 백지 쓰는 것보다 말로 내뱉는 게 시간이 적게 들었어요. 설명을 잘 하지 못하거나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자동화되어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체크해두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니깐요. 어떠한 방법이든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가, 알고 있다는 인식의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스테디를 활용했어요.

네 번째 방법은 암기 장소를 바꾸기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서미를 외우고, 화장실에서 교육학 헬핀과 크로프트를 외우고. 거실에서 중국 미술사 외웠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장소에서 외웠던 환경이 기억에 남더라구요. 지금도 놀이터 그네에서 봤던 네벨슨의 작품이 떠올라요. 이번 임용시험에 나왔을 때 그때가 떠오르면서 단어들이 기억이 나더라구요.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 아니었는지 꽤 돌아다니면서 외웠어요. 외우는 양은 적지만 그 기억은 오래 가더라구요! 졸릴 땐 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잠이 많아서 7~8시간 잤었는데 그 이상 졸고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산만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ㅎ

5. 위상쌤 모의고사와 이론 묶어 단권화 하기

단권화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권화의 목적은 이론을 빠르게 회독하기 위함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지 않았습디다. 위상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구요. 제가 단권화 한 방법은.. 위상쌤 기본서에 모의문제를 전부 붙여 두는 것이였습니다. 책을 정말 걸레처럼 썼어요. 이론 옆에 문제를 붙여 두고 해당 이론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영역과 묶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키워드 인지 문제를 보고 같이 암기하려고 했어요. 심화 책에 있지만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같이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걸 단순 노동이 필요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을 때 집중 안될 때, 유튜브로 미술 관련 영상 틀어 놓고 가위로 책 과 프린트를 잘라 붙였습니다.

		
<p>왼쪽이 이론, 오른쪽이 장쌤 문제 같이 놓고 보고 이론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키워드를 체크 했어요</p>	<p>견출지? 같은 것으로 제가 스테디 문답때 답하지 못한 내용은 다시 볼 수 있게 체크 해두고 자기 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길게 빼놓았었어요.</p>	<p>이렇게 묶어 놓은 책을 저녁에 자기 전 누워서 다시 봤어요 옆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바로 보이도록 책도 같이 눕혀줬어요</p>
	<p>다이소에 가면 싼 값에 많은 양으로 살 수 있어요! 많이 붙어있던걸 떼어내는데 희열감이 있어요 ㅎㅎ</p>	<p>잠들기 전에 유튜브 보는 것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잠이 안온다면 미교론을 보세요 5분 내로 잘 수 있어요</p>
<p>왼쪽은 다른 교재, 오른쪽은 위상쌤 책 포스트잇에 중요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붙여두었어요</p>		<p>잠을 잘 자야 졸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p>

6. 스터디 활용 방법

저는 장의존형이라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게으른 편인데다가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어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스터디를 했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만 작성 할게요!. 스터디는 정말 케바케라 스터디 원의 화합이 좋지 않으면 서로에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인강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복습을 소홀히 하게 되어서 무조건 복습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복습, 반복 너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합이 좋지 못해서 스터디도 많이 바꿨어요. 후반에 가서야 스터디가 자리 잡혔어요.

① **아침 교육학 모범답안 읽기 스터디** : 7시~8시 4회차씩 읽으면서 잠깨기

반복해서 읽다보면 서론 결론 쓰는 형식은 눈감고 그냥 말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기상스터디** : 월~금 8시 전까지 착석 (데이마인, 타임스탬프 인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벌금제로 했었습니다. 사진만 찍기 때문에 부담없었습니다.

③ **생활 스터디** : 구르미 캠(미술교과4명) 월~금 10시간 이상 인증

같은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10시간 이상 공부했었고 서로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자극받았어요. 일하면서 스스로 쳐지고 늘어진다 생각이드 때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④ **전공 인출 짝 스터디** : 범위 정하고 30분 동안 단답형 문제 내고 답하기 (점검용)★중요합니다!

전 영역을 회독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내가 생각한 중요한 것과 상대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점검할 수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으로 시간을 정하면 서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⑤ **전공 복습 짝 스터디** : 모고 문제 중요부분 키워드 뽑아보고 설명하면서 복습 (복습용★, 단권화용)

임용 시험은 키워드를 얼마나 탄탄하게 쓰느냐 인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고에서 꼭 써야하는 키워드와 출제자의 의도 등을 연습하기 위해 했습니다. 인강만 듣고 나면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기 위해서 했었고, 스터디를 하면서 단권화 필요한 문제는 바로 잘라서 교재에 붙였습니다.

⑥ **미교론 짝스터디** :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만 다시 복습★ 인강듣는것보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많은 양을 공부하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교론은 주에 한번 꼭 돌아가도록 스터디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교론만 따로 하거나, 서미에서 70~80년대만 따로 하거나, 중국 화론만 따로 하는 등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정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⑦ **교육과정 노래 스터디** : 교육과정 노래 돌아가면서 부르기

1주에 한번 영역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두 번씩 불렀습니다. 각자 노래를 만들고 녹음해서 공유하고 같이 부르면서 암기 했습니다. 혼자 노래 만드는 것 보다 빨리 만들 수 있어요.

⑧ **교육학 오프라인 스터디** : 유일한 오프라인 스터디, 제비뽑기로 문제 즉답하기.

느슨해진 교육학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m 7~8			①				예배
8~9			② ③				
9~10	⑦		근무				
10~11							
11~12							
pm 12~1	점심시간						
1~2		④	근무	④			한 주 못한 것 채우기
2~3							
3~4							
4~5			⑤		⑤		
5~6		⑧	⑤		⑤		
6~7	저녁시간						
7~8							한 주 못한 것 채우기
8~9							
9~10							
10~11							
11~12	⑥	⑥					

요일 변동은 자주 있었는데 주 마다 계획했던 부분은 밀리지 않고 하려고 했습니다.

표로 정리해두고 그날 못하더라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주말을 비워두었어요

스터디 주간 일정표입니다.

전공은 7월 초까지 3회독을 했었네요
포인트는 정해진 시간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물어보지 못한 부분은 주말에 추가로 하거나,
다음 회독에서 못한 부분을 중점으로 회독하도록 했습니다

일자	영역	회독	
5월 23	미교론	미교	
26	미학, 어린이미술		
30	비평, 교육과정		
6월 2	회화, 판화	표현	
6	조소, 서예		
9	디자인		
13	공예	3 회독	
16	동미(일본, 인도, 중국)		
20	중국, 한미(고대~삼국)		
23	한미(고려~조선~근현대)		
27	서미(고대~사실)		
30	(바로크~인상주의)	서미	
7월 4	휴무		
7	미래주의~신사실주의		
11월	팝아트~네오지오	4 회독	
4회독 다시 ★꼼꼼하게★ 공부하기!			
7월 14 목	미학, 대중매체, 어린이, 모던미교		미교
18 ○	포모미교, 교육과정, 감상		
21 □	회화(~전통회화)		
25 ○	서예, 전각, 판화		표현
28 ○	조소, 디자인 역사		
8월 1 ○	색채, 시각D, 산업D		
4 □	영상D, 공예		동.한미
8 ○	동미(일본, 인도, 중국)		
11 □	한국조형사 (삼국~통일신라)		
15 ○	한국조형사 (건축~도자기)		
18 □	회화사 (고려~조선전기)		
22 ○	회화사(조선후기~근현대)	서미	
25 □	이집트~로코코		
29 ○	신고전~러시아와 야망		
9월 1 □	다다~엠프로멜	미교	
5 ○	색면추상~아르테포베라		
8 □	70년 말미디얼~네오지오		
5회독부터 (★중요 논점만!) 범위에서 (10문제 뽑아서!) 어린이, 미교, 교육과정, 감상, 미학			5 회독
9월 15 □	회, 판, 조, 서		
19 ○	다, 공		
22 ○	동미(중, 알, 인)		
26 ○	한국 조형사		
30 □	한국 회화사	서미	
10월 3 ○	서미1		
6 □	서미2		
10월 10 ○	서미3	미교	
13 □	어린이, 미교, 교육과정, 감상, 미학		
17 ○	회, 판, 조, 서, 다		
10월 20 □	중, 일 인, 한국조형사, 공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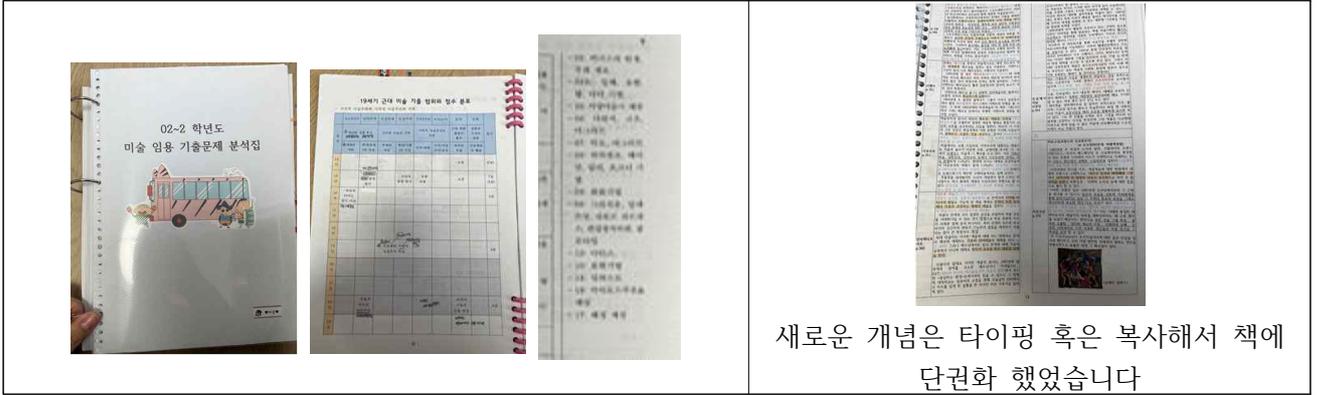
7. 1년 공부 계획

최합했던 1년간의 공부 계획을 표로 작성했던 게 있어서 같이 첨부합니다! 저는 1년 단위, 1주 단위,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워두고 했어요! 하루에 못한건 그 주에 끝내고, 그 주에 못 끝냈다면 그 달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짜보았어요! 함께 들었던 다른 강의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실제 들었던 강의만 색을 입혔어요! 초수, 재수때 위상쌤 기본강의를 두 번씩 들었던 터라 개인공부에서 기본 이론 점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전공	위상 기본		위상 심화		서술·기출분석		통합 모고		실전모고		파이널		
			기본 이론		용어사전		영역첨삭		핵심이론 점검 통합모고		파이널		
	서양미술 이론												
★ 개인 공부	이론 점검(회독 1~2회)												
	복습 + 단권화								회독 + 백지인출 완전 암기!				
스터디	생활스터디 (기상 + 구루미)												
	전공 짝 스터디 1												
	전공 짝 스터디 2												
	교육과정 노래												
교육학	필독서(이론 점검 위해)				모고복습 스터디								
	교육학 오프라인 스터디												
	오전 모범답안 읽기 스터디												
	기본서 회독	핵씩 회독	요씩 회독	7.8 문풀		최종모고							

8. 기출분석 및 교과서 분석

기출분석 강의는 초수, 재수때 이미 전부 들었었습니다. 삼수 때는 따로 듣지 않았어요. 기출분석은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출제자의 관점과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위상쌤께서 기본강의나 심화 강의 하실 때 몇 년도에 몇 번 출제되었는지 같이 말씀 해주시는걸 전부 체크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분석을 할 때 생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로 어떤 것이 출제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어요. 점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문제들 위주로요. 연표에 기출된 키워드 위주로 정리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두고 보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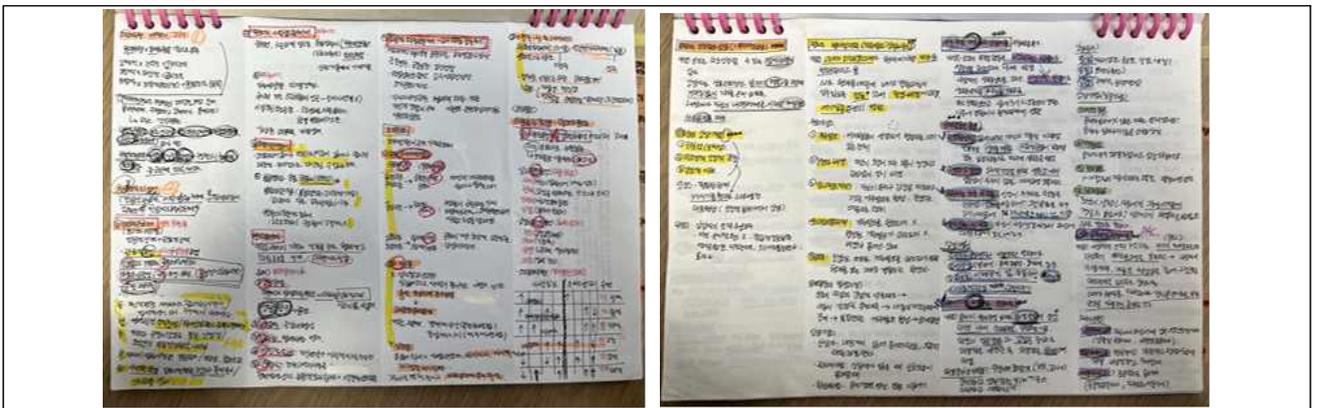


교과서 분석은 빠르게 인강을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된 개념이나 용어를 잘라서 교재에 붙이는 식으로 바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영역을 빠르게 회독하기 좋더라고요. 이미지도 재미있었고 들으면서 실제 수업 할 아이টে을 생각 해보면서 같이 메모 해 두었습니다.

9. 시험 전 공부 정리

9월 정도 부터는 시험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단권화 한 책을 전부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9월부터 제 개인 공부로 5회독이 시작 되고 있었고 스터디원과 함께 하면서x3 이 된 셈이었어요. 짝스터디가 2명이였기 때문에 회독은 빠르게 되었어요. 단권화를 빨리 해야 회독도 빨라집니다. 9월 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과 암기되어야 하는 부분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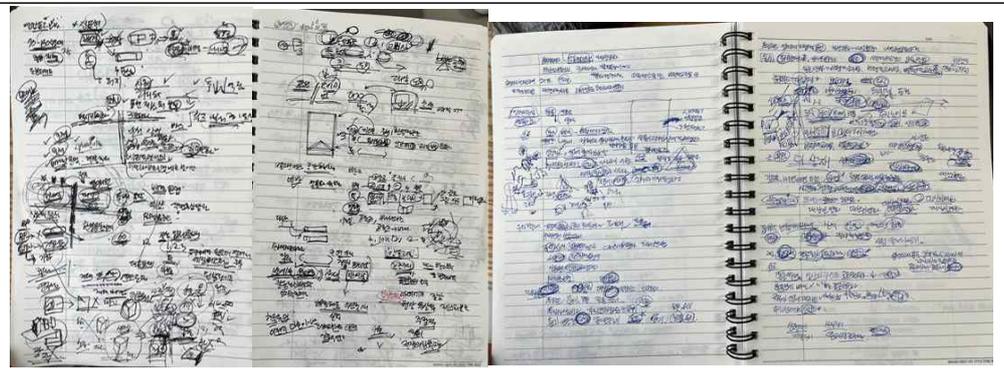
교육학은 A4용지 양면으로 5장 안에 정리 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했고, 전공은 책 1권이 나오다가 점자 복습하면서 40장 내외로 줄어들어요. 이때도 예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상세하게. 내가 잘 외우고 있는건 키워드만 딱. 외우고 있는 청킹만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백지 쓰기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설명하듯이 백지에 써보면서 점검했어요. 이때 사용했던게 체크리스트 다운받아서 내용을 점검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있다고 하는 인식의 착각이 정말 많아요. 자주 본 내용이니까 익숙해서 외운줄 착각하는거죠.. 막상 백지쓰기 해보면 설명못하고 막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으로 위주로 다시 외워야해요. 저는 예쁘게 쓰지 않고 낙서하듯, 실제 말로 내 뱉으면서 점검했습니다! 예쁘게 쓰면 시간도 걸리고 손도 아프니까요..! 말로 내뱉으면 시간도 줄어듭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백지쓰기 했던 것입니다! 말하면서 낙서하듯 했었어요!

10. 1차 시험 후기

시험 전부터 뉴케어 먹으면서 식습관도 조절했어요. 시험장 가서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허기가 빨리 채워지는 게 편했어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시험 처야 해서 한입에 들어가는 부드러운 빵과 뉴케어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쳤던 곳은 경산 '삼성현중학교' 였습니다. 경산여중과 여고에도 많이 치더라구요. 시험장 위치는 전날 미리 확인 해두고 시험장 근처에서 하루 1박 했어요. 시험 전날에는 요약본에 파란색과 붉은펜으로 써둔 부분만 따로 더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전 영역을 몇시간 안에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위상샘이 출제 될 것이라 짚어주신 부분을 꼭 두 번정도는 보려고 했어요.

시험장 가서 화장실 위치 확인하고 먼저 다녀왔어요! 시험중간에 암기한거 잠깐이라도 보려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더라구요. 여자화장실은 줄도 많이 길어요... 다른 과목도 같이 시험을 치르니까 수험생이 많아요.. 미리 다녀오시는걸 추천해요.

11. 2차 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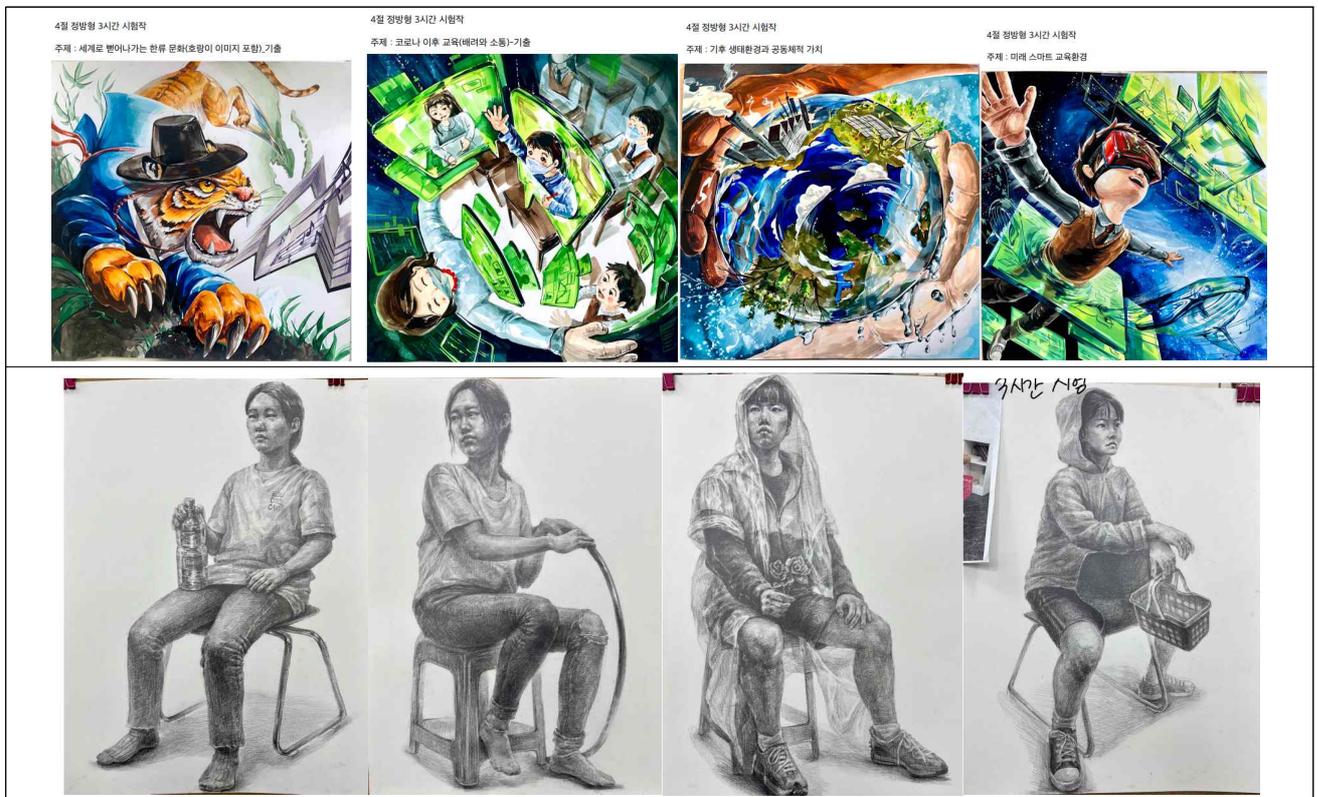
인체 소묘는 1차 끝나고 바로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재수때 한달 정도 배운 것이 다였기 때문에 이젤에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소묘는 디자인 소묘를 해왔어서 회화 소묘의 느낌도 잘 몰랐기 때문에 바로 등록하고 그림 그렸습니다. 다만 면접과 수업실연과 지도안의 점수가 40+20+10 으로 배점이 크기 때문에 1차 발표 전까지는 주 2타임으로 했습니다. 1차 발표 이후 주 4타임 하다가 시험 앞둔 3일은 하루3타임씩 하면서 실기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실기 강사를 오랜 시간 해왔어서 전공 과목인 디자인영역은 시간내 완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습했습니다. 실제로 임용생도 가르쳤었고요. 디자인 도움 될까 해서 제가 실제 연습해온 3시간 시험작을 같이 첨부 합니다.

시험치기 전에 수험생 안내로 대기실과 고사실을 분리해서 하는 것과, 번호를 추첨하는것도 전부 알려줬었어요. 번호 추첨해서 지정된 자리로 가서 고사실에서 실기 시험을 칩니다. 이때 개인 짐은 대기실에 두고, 신분증과 수험표, 재료만 가지고 고사실로 가면 됩니다. 재료는 편하게 손에 익은 재료들을 사용했어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소 연습하던 재료로 평소 연습하던 완성도 만큼 그리자고 생각 했어요.

인체 소묘는 모델 이미지가 나왔었고, 5장 중에 선택해서 그리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모델이 크고, 제 장점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로 선택했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시간내에 표현보다는 형태나 비례를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게 장점이라고 하셔서 모델이 크게 그려질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 했습니다.

모델은 고개 숙이고 한발을 의자위에 올린채 신발끈을 묶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머리는 올림머리를 하고,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베이지색 후드에 경량 패딩 조끼를 비슷한 톤으로 입고 있었고 하의는 어두운색 레깅스를 입었어요 ! 그럴것이 많고 자잘해서 형태와 명도 차이, 질감 톤 순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틀리지 않고 그리려고 했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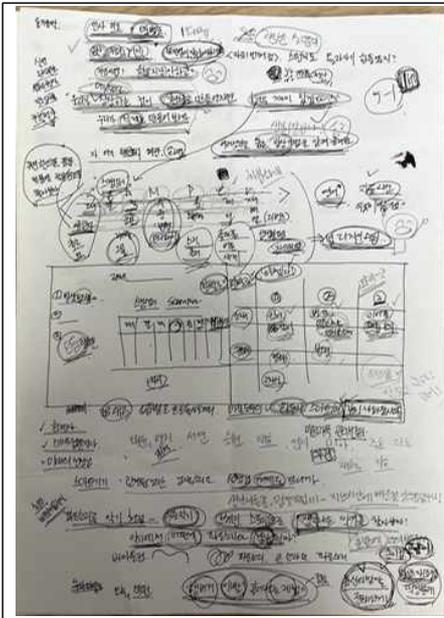
12. 2차 면접, 수업실연, 지도안

1차 시험이 끝나고 1주간 쉬면서 스테디를 구했습니다. 23학년도에는 2차 시험이 일주일 정도 빨라져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2차는 스테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구하려다 보니 장소와 스테디 원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스테디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2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워밍업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어요. 한주에 한번씩 오전에 캠을 켜서 실시간으로 실연을 진행했습니다. 지도안은 전날에 작성해서 밴드로 공유했구요. 2차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이라도 피드백은 가능합니다! 어색한 부분이나 단어 선택 등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무엇보다 실연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어요. 1차 발표 전까지 온라인으로 스테디를 했고 발표후에는 대면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면접스테디입니다. 1차 발표 후 저만 합격을 하게 되어서 다시 스테디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진행하던 스테디에서 빈자리도 좀 있었고, 충분히 다시 구할 수 있었어요. 한주에 두 번정도 만나서 스테디를 했고, 한번 볼 때 마다 두 세트씩 했어요. 면접레시피에 있는 문제를 서로 뽑아와서 앞면에는 구상형, 뒷면에는 즉답형으로 실제 면접장처럼 연습 했었어요

수업 실연 스테디입니다. 면접스테디원 중에 미술선생님이 한분 계셔서 면접 끝나고 실연을 이어서 했어요. 위상쌤이 주시는 2차 문제를 같이 연습했어요! 실제 구상하는 시간과 지도안 작성까지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수업실연은 1번을 뽑았습니다. 제일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더라구요. 지도안 작성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면지에 복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었고, 조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체크해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내에 실연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부터 끝까지 전부 했어요. 이미지도 많아서 시간이 없었지만, 블록타임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실연했었습니다. 칠판은 어떻게 판서할 것인지 구획도 나눠서 구상했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구상했던 구상지입니다.

인사는 어떻게 할것인지,

모듬별로 학습하고, 개별 작품을 진행하는 것,

스캠퍼를 설명하는 것 등

제시된 조건들을 언제 챙겨야 하는지를 구상했어요.

가운데 네모칸은 칠판에 설명할 부분과

아이디어 발상과정, 예시로 든 이미지 3개를 스캠퍼와 어떻게 구상할지 등

판서를 계획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발상을 하면서 칠판에 그림도 그렸어요.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조건만 놓치지 말자 생각하면서 구상했었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3. 정리하며

급하게 후기를 작성하느라 두서없이 작성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힘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많이 부족한 합격수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스타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 궁금한 점이 따로 있으시면 인스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